

紐帶

유대

band

College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CONTENTS

유학대학 소식 03

유학대학 설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 선정
유학·동양학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선정
림관한 장학금 수여식

날아라 유학대학 04

유학대학 순성놀이 완주
유학대학원 해외학술 답사

글로벌 유학대학 06

칭화대학교 파견
필리핀 어학연수 파견
보인대학 복수학위 체결

선배들의 진로이야기 07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
-성지희 학생 인터뷰

특별인터뷰 08

유학대학 신입교원 백영선 교수 인터뷰

동문소식 10

유학대학 동문회 준비위원 소개
강득구 경기도연정부지사 인터뷰

우리는 유학대학 Family 12

양현재를 소개합니다
학과사무실을 소개합니다-학과교과 인터뷰
행정실을 소개합니다-신입직원(이준호) 인터뷰

알립니다 15

순성놀이
유학대학원 해외학술 답사
일반대학원 모집 등

학장 인사말

“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학교의 설립과 운명을 같이 하여 6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관학부로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근대 기준으로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유학대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3,920명에 달하는 인재를 배출하여 자타 공인하는 유학 연구의 중심입니다.

유학대학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대학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학대학의 위상은 국내외에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칭화대 학생 파견, 필리핀 어학연수, 복수학위제도의 상례화로 유학을 하지 않아도 유학 연구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대학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교시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건학 이념을 뒷받침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대학교에 어울리는 인재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대학은 K-MOOC 사업 등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학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유학대학의 전통을 이어지고 있는 교수진과 재학생이 열의를 다해 일구어 낸 결실이며 졸업한 뒤에도 모교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동문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대학은 지금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어 통일 한국과 인문 세계를 준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유학대학의 구성원은 교수진, 재학생, 졸업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는 유학대학과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을 묶는 구심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알리고 싶은 이야기와 소식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로 연락을 주십시오. 기쁨을 나누어 두 배로 만들고 슬픔을 나누어 반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의 창간을 계기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의 구성원이 한결 더 가까워지고 유학대학이 더 착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학대학 학장 신 정 근

유학대학 소식

유학대학 설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유학대학은 2016년 10월 29일 600주년기념관 조병두국제홀에서 '유학대학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와 시작을 같이 하고 있는 유학대학의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규상 총장, 유학대학 명예교수 등 30여 명의 내빈과 심우섭(동철59) 동문대표 등 277명의 유학대학 동문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정규상 총장과 심우섭 동문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안병주 명예교수의 회고와 유학대학 70년사 및 유학대학 사업단 소개에 이어 재학생 대표의 감사 인사와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신정근 유학대학장은 이기웅(동철60), 성의경(동철61), 이광원(동철66)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하고, 유학대학원 이완근, 림관현, 이대현 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면서 유학대학의 발전과 유대를 강화하는 다짐 속에 '유학대학 동문회 설립 추진 준비위원'을 선임하였다.

동양철학과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유학대학 동양철학과 '유학 교육 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통합 랩 사업단(단장: 신정근 교수)'이 BK21 플러스 사업단으로 재 선정되었다. BK21 플러스 사업(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and Students)은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며, 동양철학과는 2013년 3단계 BK21 플러스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번 중간평가(2015-2016년 시행)에서 재 선정되어 유학대학 동양철학과 연구역량이 우수함을 대외적으로 공인 받게 되었다.

유학·동양학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선정

유학·동양학과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이 2016년 7월 시행된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중간평가에서 재선정되는 결과를 성취하였다. '대학특성화사업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강점 분야에 특성화되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며,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107곳(지방 79개 대학 264개 사업단, 수도권 28개 대학 77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유학·동양학과 학부생의 글로벌, 소통, 인성, 창의 4개 분야 역량강화를 목표로 해외유교문화탐방, 성균관스토리텔링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한 결과를 인정받아 재선정되었다.

유학대학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선정

우리대학이 인문학 분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인 CORE(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었다. 유학대학, 문과대학과 동아시아학술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매년 34억 원이 지원되는 CORE사업에서 유학대학은 기초학문심화모델에 참여하여 선정되었다. 기초학문심화모델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을 수행하며,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의 학업지원금, 해외교류경비, 각종 학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유학대학 전체 전임교원과 학사, 석사과정 학생 모두가 CORE 참여인원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및 대학원진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림관한 장학금 수여식



'2016학년도 2학기 림관한 장학금 수여식'이 2016년 12월 29일 유학대학장실에서 진행되었다. 림관한장학금은 본교 법률학과(56학번)를 졸업하고 유학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림관한 동문(전 북미주연합동문회장)이 기금을 출연하여 유학대학 학사과정 학생들에게 매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에는 고윤재(유동12), 우지수(유동15) 학생에게 각각 17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림관한 동문과 유학대학장, 이기동 교수, 김도일 교수가 참석했다.

유학대학 순성놀이 완주



순성놀이

조선 후기 유득공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 풀이하였다. '유학대학 순성놀이'는 한양도성의 성곽(총 18.6km)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연 2회(봄/가을) 성곽을 따라 걷는 행사이다. '유학대학 순성놀이'는 조선의 도읍지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도성과 명소를 직접 찾아가, 도심 속 문화유산 안에 깃든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졸업생, 교수 등 유학대학 구성원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참가자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있다.

2015년 5월 첫 걸음을 시작한 '유학대학 순성놀이'는 2016년 11월까지 총 네 차례의 순성놀이를 통해 한양도성을 완주했다. '유학대학 순성놀이'는 한양도성 2차 완주를 목표로 제5회 순성놀이를 2017년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순성놀이(1차) 완주 연혁

구분	일자	구간
제1회	2015.5.10.(일)	성균관대학교-와룡공원-혜화문-이화마을
제2회	2015.10.31.(토)	성균관대학교-말바위전망대-숙정문-백악마루-창의문
제3회	2016.4.30.(토)	송례문-남산팔각정-남소문터-장충체육관-광희문-흥인지문
제4회	2016.11.5.(토)	송례문-배재공원-정동길-경교장-인왕산 순성길-창의문



제5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안내

2017년 첫 순성놀이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7. 5. 13(토)

구간 : 성균관대학교 → 와룡공원 → 혜화문 → 혜화동성당 → 낙산공원 → 전망대/벽화마을 → 흥인지문 → 광희문

참가 신청 : 유학대학 홈페이지(<http://scos.skku.edu/scos>) 공지사항 참조(4월 초 공지 예정)



유학대학원 해외학술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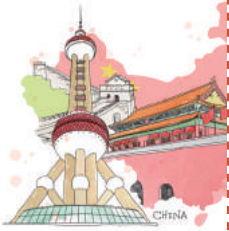
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9월경 유학대학원장과 함께 공자/맹자 등 주요 성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외학술답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학술답사는 학위과정생과 공개과정생(가족·친지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16년에는 신정근 유학대학원장 등 28명이 9.23~26(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내 제남, 태안, 곡부, 추성, 니산지역을 방문하였다. 학술답사단은 공림(공자와 후손들의 가족묘), 공묘(공자 사당), 공부(공자 후손들의 저택이자 관저), 부자동(공자 출생지), 맹림(맹자 묘), 맹묘(맹자 사당), 맹부(맹자의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저택), 맹자고택(맹자의 유년시절 거주지), 니구산, 천불산, 태산, 산둥성박물관, 표돌천, 대명호, 황화강변을 둘러보면서, 유학(儒學)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는 학도(學徒)로서 유학의 진수를 몸소 체험하였다.

2017년에는 신정근 유학대학원장과 함께 4.14~17(3박 4일) 일정으로 푸젠성(福建省) 내 우이산(武夷山)을 다녀올 예정이다. 우이산(武夷山)은 국가급풍경명승구(1차, 1982)와 UNESCO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국가 66개 5A급 여유경구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우이산(武夷山)에는 고대 월족(越族)의 활동 중심지인 민월왕성(閩越王城) 유적이 남아있으며, 월족이 절벽위에 안치한 선관(船棺)인 우이산애묘군(武夷山崖墓群, 무이산 애묘군은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남송 시기에 주자(朱子) 성리학의 요람으로 주희(朱熹)가 이곳 자양서원(紫陽書院)에서 40여 년간 학문을 가르쳤다. 또한 원대의 어다원(御茶園) 및 역대 마애석각 등 명승고적이 많이 남아있다.



칭화대학교 파견

유학대학은 2016학년도 겨울학기 '중국 칭화대학교 파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중국철학 학습 및 중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전공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학대학 학사 과정생 및 일반대학원생 20여 명이 지원하여 중국어 능력 면접을 거쳐 12명(학사과정 2명, 일반대학원 10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칭화대학교에 파견되어 중국철학과 중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필드트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5학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2017학년도 겨울학기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유학대학은 2016학년도 겨울학기에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소재에 있는 AELC 어학원에 7명(학사과정 4명, 일반대학원 3명)의 학생들을 파견하였다. 2015학년도에 우수학부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는 일반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평일에는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어학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액티비티 활동에 참여하였다. 유학대학은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국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어학연수 파견



보인대학 복수학위 체결

유학대학은 대만의 명문대학인 보인대학 철학과와 복수학위 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이 협정은 대만 보인대학 철학과와 유학대학 일반대학원 학생들의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 2017년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면 두 학교 간 동양철학 분야에 있어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1명 중 유학대학 성지희 학우(유학·동양학과 11학번) 등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3명이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6년 외교관후보자로 최종 선발되어 1년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 교육을 받을 예정인 성지희 학우를 '유대(紐帶)' 창간호에서 인터뷰하였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성지희 학생 인터뷰



Q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적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교관을 장래희망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환학생을 가거나 교내 SG MAPLE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초 대학생을 위한 외교부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외교관에게 필요한 자질, 역량 및 외교관이 되는 방법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시험 준비기간 및 과정은 어떠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14년 가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우선 시험을 시작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4년 가을에는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1차 시험 과목인 PSAT을 공부하였고, 2015년 봄부터 신림동 고시촌에서 2차 과목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실함입니다. 유학동양학 전공, 경영학 복수전공생인 저에게 있어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필요한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과목은 무척이나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학원 수업을 따라가고 스스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하루하루들을 통해 그 낯설을 극복해나가고자 노력하였습

다른 어려웠던 점은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다 보니 해도 해도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만 같다는 느낌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을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생각을 전환하여 공부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즉, 앞뒤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며 불안감을 느끼기보다 현재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 더욱 집중하기로 마음먹고, 현재 공부하는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Q 성지희 학우의 향후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외교관 후보자 제 4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외교부에 입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외교무대에서는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전통적 외교를 초월하여 타국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자국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공공외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보다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국가로 인식되고, 그를 통해 중요한 외교 이슈에서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Q 유학대학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처럼 꾸준함과 성실함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배님들께서 취업을 하시건, 대학원에 진학하시건, 시험을 준비하시건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으시건 간에 꾸준함, 성실함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꿈꾸는 바를 모두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기에 낙숫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진지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Q 교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유학대학으로 오시게 되었나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성균관대학교에 이기동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봄이었는데 가을이었는데는 가을이었는데, 그 어느 날씨 좋은 날 명륜당 옆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봄직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지, 왜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유학대학 공채 공고를 보고 지원할 당시만 해도 한국학계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으로 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016년 봄에 유학대학에 부임하여 여러 교수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과 밝고 똑똑한 학생들의 열기로 첫 일 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학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다짐해봅니다.

Q 유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의 모든 관심은 종교나 철학, 인류학 쪽 수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마치고 동 대학 대학원 한국학과에 진학하여 한국 종교 전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수업에서 최준식 교수님께서 맹자를 강연해 주셨고, 그때 수업을 들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신 심귀덕 교수님께 맹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심 교수님의 추천으로 민족문화추진회(지금, 한국고전번역원)에서 2년 동안 한문을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성백호 선생님께 논어를 배우면서 제가 그 당시 고민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석

유학대학 신입교원 **백 영 선** 교수

‘유대(紐帶)’ 창간호에서는 특별인터뷰의 첫 주자로 유학대학에 최근 임용된 백영선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백영선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미국위스콘신대학교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홍콩성시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박사후과정을 마친 후에 지난 2016년 3월 우리 유학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학업과 연구 경험을 쌓은 백영선 교수가 우리 유학대학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지 들어보기로 하자.

사 논문을 쓰고 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Q 공부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성취감이 컸던 순간이 있나요?

제 박사 논문의 핵심 주제는 “명(命)”이었습니다. 선진 시대의 사상가들을 거치고, 또 송대의 주희와 조선시대의 정약옹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고, 왜 변화했고, 유학 전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논문의 마지막 챕터를 끝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논문을 쓰는 시간을 통해 어떤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성취감보다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조금은 더 튼튼하고 단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도감 혹은 만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도감과 만족감이 학문적 성취감보다는 더 값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야말로 다른 학문이 쉽게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유학이 우리 삶에 공헌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유학 분야에서 연구와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연구와 학업을 지속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와 학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이겠지요. 저는 대학원 학업을 하면서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에만 집중하고, 가장 가까운 목표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박사 논문만 완성하자,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좋은 저널에 내 논문만 한 편 출간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박사 후 과정에 들어가서는 다른 저널에 논문을 한 편만 더 출간해보도록하자였습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면 자신이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려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런 좋은 자리에 오게 되어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는 미래를 대처하는 안일한 자세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성균관대학 유학대학에 올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지만, 이런 요행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먼저 자리를 잡은 선배가 저에게 해 준 조언이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 논문을 쓰되, 잡마켓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

도록 논문 주제를 잘 조정하면서 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즉, 자기 원하는 연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들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구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대학에서는 동양철학 방면보다는 유학이나 도교를 종교학 측면으로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거기에 또 동아시아 전반,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급급했던 터라 선배의 조언을 조언으로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유용한 조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현재 열정적으로 학업 중인 분들에게 비슷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진지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앞으로 대학교들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거기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 남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조언은 아니겠습니다. 저도 제 갈 길이 삼만리이지만, 그 과정을 조금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교수님의 향후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유학대학에 부임하면서 제일 가슴에 와 닿게 깨달은 것은 혼자서 하는 연구의 과정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과정은 얽혀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다른 가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연구자로서의 성숙의 시간이었음에 반해, 교육자로서의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가치 있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많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연구자의 의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학원 수업에서는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욱 재미있고 색다르게 요즘의 학생들에게 유학과 동양철학을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목표는 연구자로서의 성취하겠습니다. 최근, 목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져서 목자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진 사상가들을 연구하면서 목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공자와 맹자의 관계도, 맹자와 순자의 관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마무리 되면 박사논문을 다시 재고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유학대학 동문회 준비위원 소개

유학대학 동문회 구성을 위해 준비 중인 동문들과 동문회 구성 추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학과별 준비위원 •

유학과



성명	박홍식(유학73)
연락처	010-2329-1320
이메일	hong@dhu.ac.kr
자문위원	김성기 교수

한국철학과



성명	진영주(한철89)
연락처	010-9275-2208
이메일	cyly@naver.com
자문위원	최일범 교수

동양철학과



성명	함현찬(동철87)
연락처	010-8705-1774
이메일	foprajh@hanmail.net
자문위원	박상환 교수

유학대학원



성명	이흥근('13)
연락처	010-5410-4115
이메일	root0102@kofia.or.kr
자문위원	신정근 교수

• 학과별 동문회 구성 추진 일정 •

4월~6월

학과별 동문회 명부 작성

7월~9월

학과별 동문회 추진위원단 및 집행부 구성

10월~12월

학과별 동문회 정기총회 준비 및 실시

interview

유학이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Q1: 소식을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철학과를 졸업한 강득구입니다.

저는 1998년 30대 나이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경기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후로 줄곧 지방자치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도의회 야당의 대표의원과 도의회 의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정부지사라는 자리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지금 연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정(聯政)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정파 간에 권한을 나누고, 협치 하는 것이 연정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과 부지사인 저는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그러나 연합정의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한 제가 부지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Q2: 정치인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치를 하게 된 것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 신문배달을 하면서 신문 보는 습관이 생겼고, 정치사회면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1980~1990년대에는 정치현장에서 정당 일을 돕기도 했고요. 그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98년, 정당 활동을 같이 하던 선배들로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받았습니다. 당시에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던 터라 고민을 하던 와중에



경기도연정부지사 강득구 의원

'장사를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지만, 정치를 하면 나와 내 이웃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후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Q3: 가장 성취감이 컸던 순간들이 있나요?

제가 학생이나 운동선수는 아니니까 성취감보다는 보람이라고 말씀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비록 작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제가 주장하거나 힘을 실어줬던 일이 잘 추진돼 주민이나 담당자들이 좋아하고 혜택을 느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몇 년 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의회 청사 건물 청소를 해 주는 환경미화원들을 외주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 형태로 바꾸었을 때입니다. 고용 전환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을 드렸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4: 유학대학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성대인으로서 그리고 유학을 배우는 학도로서, 후배들께서 항상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은 오랜 기간 우리 민족 정신 세계의 근간이 되어왔고,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이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학문을 배우는 학도로서 긍지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인생에 있어 소중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후배들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Q5: 향후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고, 그 시대 정신이 투영된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존중된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 때문에도 저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도의원 3선과 의장직, 그리고 지금의 부지사 자리까지 그동안의 경험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연정부지사로서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현재를 소개합니다!

양현재는 어떤 곳인가요?

양현재는 새로이 배움을 청하는 젊은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성균관대학교 고유의 장학 기구입니다. 유학대학 재학생과 전공예약 신입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특강 및 성균관의 맥을 잇는 다양한 의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양현재 장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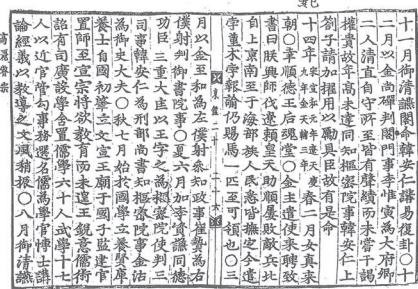
학대학 재학생과 전공예약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에 약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학대학 재학생이거나 유학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 있다면 양현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보세요.

둘째로 양현재는 재학생 대상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양철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중국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학수업과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수업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현재는 성균관 600년 역사를 계승하는 전통의 핵심인 석전대제와 순성놀이와 같은 교내 주요 의례와 행사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양현재 자체적으로 선현들에 대한 고유 및 양현재 입실을 알리는 입재식과 지방의 서원에서 기숙하며 경학에 힘쓰는 임간수업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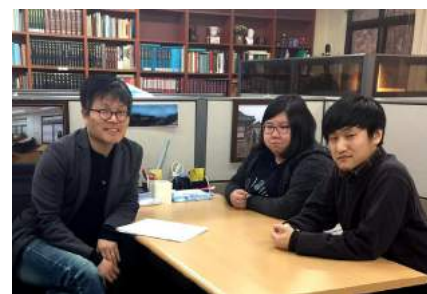
양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장학 사업입니다. 유



동국통감 고려기에 따르면 양현재의 전신인 양현고의 역사는 고려 예종 14년부터 시작됩니다. 유학을 부흥시키고자 당시 국학이었던 국자감에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양현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양현재의 시작을 예종 14년, 즉 서기 1119년으로 본다면 양현재는 올해로 창립 898주년을 맞이합니다.

양현재 장학생인 '재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유학대학 소속 학생이어야 합니다. 재생 선발은 직전 학기에 양현재 수업을 수강한 기존 재생들과 청강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 양현재 수업성적, 행사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전공예약 신입생은 수능성적 등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새로이 유학대학 일원이 된 전공 진입생들은 이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민족문화 발전의 큰 뜻을 품은 학생이라면 양현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학·동양학과 사무실
김가람 조교

안녕하세요, 유학·동양학과 조교 김가람입니다. 작년 봄, 처음 임용되었을 때가 아직 눈에 선한데 어느덧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네요. 유학·동양학과 사무실에는 저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조교가 있습니다. 광혜성 조교와 오진솔 조교는 특성화 사업을 담당하며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임간수업과 방학 중 개설되는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학대학 소속 조교는 저, 김가람 조교 한 명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적, 학점교류, 수업, 졸업논문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신입생보다는 졸업예정자와의 교류가 잦을 겁니다.

유학·동양학과 사무실은 인문관 5층 양현재의 맞은 편에 위치합니다. 다과가 마련되어 있으니 학생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쉬고 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 옆에는 공지사항을 부착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유학대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지를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학부생의 수가 많아서 얼굴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마주쳤을 때 제가 못 알아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혹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과 사무실
이다현 조교

안녕하세요, 유학과 조교 석사 2기 이다현입니다. 저는 유학과 사무실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인문관 4층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것이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는지도 잘 몰랐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누추한 사무실

학과사무실을 소개합니다!

이지만 논문이나 기타 사항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찾아주시고 전화를 주셔도 된답니다. 또 과사무실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소식이나 매달 일정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주요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잠깐씩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학기부터 유학과 조교를 맡고 있는데요, 특히 '유학과'의 조교로서 특별한 경험은 학우분들이 제게 학업적인 선배님이신 것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들의 인생 선배님께서 많이 계신다는 건데요, 덕분에 예쁨도 많이 받고 있고, 선생님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저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학기에 석사 1기에 들어오자마자 조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많이 낯설고 적응할 것이 많아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많은 힘이 되어주신 선배님들과 행정실 직원분들, 유학대학 조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양철학과 사무실
류명하 조교

안녕하세요, 동양철학과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 류명하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긴 겨울 동안 끔찍 언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따듯한 봄 날씨처럼 풀리길 바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시죠? 학생에게 3월은 1월보다 오히려 올해를 새로 시작하는 달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모두 올해 계획한 일은 잘 실천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벌써 포기하신 것은 아니시죠? 무엇이 되었든 하고자 하는 일에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아하지 않는 취미 생활이나 여가를 억지로 가지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공자도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좇아가리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즐기는 경지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분과 이어가는 분 모두 즐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철학과 사무실
서원철 조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철학과 학과 서원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한국철학과 사무실이에요. 한국철학과 사무실은 퇴계인문관 4층 31412B 사무실인데요, 유학과 사무실과 동양철학과 사무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인지 양 현의 사무실 조교님들과도 '절친'입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면서 학과의 업무를 처리하는 조교를 병행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조교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우는 것과 얻는 정보가 많아서 좋고, 정이 많은 선배와 후배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서 좋아요. 한국철학과에는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일명 '양취(兩崔)'로 불리우시는 두 분은 최영진 선생님과 최일범 선생님이에요. 두 분은 모두 조선시대 유학의 대가들이십니다. 최영진 선생님께서는 주로 성리학과 특히 조선 성리학의 주요 논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구요, 최일범 선생님께서는 유불도 삼교를 두루 연구하시면서도 또 특히 심학(心學)에 관심을 두셔서 대륙이나 대만의 자료들까지도 섭렵하신답니다. 저 또한 두 분의 선생님께 배우는 것이 많아요. 학부에서는 서양철학을 전공하였지만, 두 분의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면서 과연 철학이 사유로서 피상적인 사고방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물어가는 것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공부 이상의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국철학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한국철학과 사무실에 편하게 차 한 잔 하러 오세요.

우리는 유학대학 Family



신입직원(이준호) 인터뷰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학대학행정실 직원 이준호입니다. 올해 본교를 졸업하고 유학대학행정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휴·복학, 졸업 등의 학적업무와 일반대학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하면서 종종 저와 연락하시거나 대면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실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직원이니 부담 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Q: 교직원이란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20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학업부터 친구들과

행복했던 많은 순간까지 모두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애정도 커져 갔습니다. 이에 비례해 교내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교직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본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모교를 직장으로 선택해서 유학대학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기쁨과 책임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원하고 소속되었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제 언행이 교내 구성원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유학대학과 성균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실 생각인가요?

바르고 온화한 자세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바른 자세란 학생들이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자세입니다. 온화한 자세는 학생들이 문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 시절, 소속대학 행정실 선생님이 위와 같은 자세를 갖고 계셨고 저도 그 수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를 본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 유학대학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Q: 유학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하시는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시고, 멋지게 성장해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유학대학 학생들은 이미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향후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교내외의 많은 활동에 참여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많은 활동에 참여해본 것은 아니지만, 학부시절 교내외에서 경험했던 활동이 현재의 삶을 선택하는 것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학대학에서도 순성놀이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많은 활동에 참여해 여러분의 꿈을 찾고, 키워나가길 소망합니다.

interview



유학/문과대학행정실장 박종상

“70년을 넘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儒學大學”

유학대학이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학대학은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진행하고 동문회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학대학 발전의 기틀을 차근 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학대학이 70년을 넘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학생, 동문, 교수 등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실 역시 유학대학 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교육/연구/학

생/학사분야 행정업무의 1등 행정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즈음에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가 창간되었습니다. ‘유대(紐帶)’가 유학대학 가족 모두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유대인(儒大人)’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동안 ‘유대(紐帶)’ 창간을 위해 애쓰신 신정근 학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행정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제5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일시: 5.13(토)
문의: 유학대학 홈페이지
<http://scos.skku.edu/scos>

유학대학원
해외학술답사

일시: 4.14(금)~4.17(월)
문의: 유학/문과대학행정실
02-760-0916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해외학자 초청 강연

1. Stephen C. Angles 교수(WesleyanUniversity)
- 일시: 5.12(금) 15:00~18:00
- 장소: 퇴계인문관 31604호
 2. Eirik Harris 교수(Shen Dao 강연),
- 일시: 5.18(목) 15:00~18:00
- 장소: 퇴계인문관 31310호
 3. Gordy Mower 교수(한비자와 마키아벨리 강연)
- 일시: 5.19(금) 15:00~18:00
- 장소: 퇴계인문관 31310호
- 문의: 동양철학과 BK사업단(02-760-0257)

2017년 유교문화연구소
춘계 학술회의

일시: 6.2(금)
문의: 유교문화연구소 02-760-0788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진학설명회

일시: 4.4(화) 13:30-15:30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홀
문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
<https://gradschool.skku.edu>

2017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석사/박사)
일반전형 모집

일시: 3.30(목)~4.17(월)
문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
<https://gradschool.skku.edu>

한국철학과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
개소(17.4.1.)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東ASIA 思想의 創意的 再解釋”

일시: 6.15(목)~6.18(일)
장소: 추후공지
문의: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02-760-0257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ttp://scos.skku.edu>

<http://gscs.skku.edu>